

---

## 미니 인터뷰 | 최미영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총회장

*posted* **APR 16, 2015**

---

“한국학교는 뿌리와 정체성을 배우는 곳”



재미한국학교 협의회는 양적인 면에서도 큰 단체다. 전 미주와 타 지역에서 약 7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석하는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동포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SAT 한국어 모의고사, 말하기 대회,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청소년 포럼 등을 개최하며, 교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차세대 교사 워크숍, 상설강사 제도 및 집중연수회 등의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미주 한국교육의 산실인 주말 한국학교 연합체의 수장인 최미영회장은 학생들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교육으로의 전화를 위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1.5세 한인 교사들을 충원시키고, 이를 위해 교사연수회 등을 통해 질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한국학교가 한글 배움터로 그치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그가 이번 간담회에서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알고 한인 커뮤니티를 배우는 곳으로서 한국학교의 모습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힘주어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의 주장은 ‘한국학교의 업그레이드’라는 과제를 담고 있다. 최 회장은 “한국어 외에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이 강화되고 현재 학생들이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과 관련된 이슈들을 알게 하고 그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곳”이 한국학교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주 한국학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교사’다. 최회장은 “한국학교의 모든 일이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점”이라면서 “앞으로 NAKS가 본질과 본연의 목표를 생각하며 21세기를 살아갈 후세대를 교육하는 교육자인 우리 선생님들께 창의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최회장은 또한 한국어 능력평가시험인 토픽과 재미한국학교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SAT II 모의고사의 차이점을 분명히 했다. 토픽은 한국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주로 어른들이 한국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치르는 유료 평가시험이고, 한국학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SAT II 한국어 시험을 대비하여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한인 2세교육이라는 것.

“한국학교의 교육은 한글뿐만이 아닌 한국의 문화와 생활도 함께 가르치는 이른바 민족교육이기에 우리들은 21세기의 독립운동이라고까지 부른다”고 말하는 그의 미소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한인 2세교육을 향한 최미영 회장의 열정은 그 누구보다 더 뜨겁다.

[뉴스넷] 임동호 기자